

북미 냉기류 속 시진핑 내달 남북 답방설

대외정책 한반도 문제 최우선 최대변수는 미국과 무역협상 일대일로 포럼 김정은 초청설

하노이 담판이 성과 없이 끝난 뒤 북미 간에 냉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내달 남북한 동시 답방설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미 방중한 바 있어 외교 관례상 시 주석의 올해 답방이 필요한 데다 북미 관계가 살얼음판을 걸으면서 북한으로선 '중국 카드'가 다시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시 주석의 답방 카드와 별도로 내달 말로 예정된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상포럼에서 북한과 중국, 러

시아의 정상이 베이징에서 함께 만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18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북·중 수교 70주년과 김 위원장의 4차례 방중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태양철(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내달 15일을 전후해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리커창 총리와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우선으로 받아 핵심 사안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 소식통은 "올해 양회에서 주목할 점은 대외 정책 중 한반도 문제를 가장 우선으로 두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시 주석이 조만간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까지 답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북·중 수교 70주년과 복잡해진 북미 관계로 김정은 위원장의 추가 방중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이 정상 국가 간 외교 관계를 지향하기 위해선 시 주석의 조기 북한 답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베트남 하노이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로 끝나면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자신의 뒷배인 중국에 기대며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 시 주석의 방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역대 중국 지도자들이 남북한을 비슷한 시기에 방문했다는 전례를 고려할 때 시 주석이 내달 평양을 방문할 경우 비슷한 시점에 서울을 찾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우리 정부 또한 시 주석의 방한을 요청한 바 있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 또한

한중 관계는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등에서 중요성이 커서 매우 신경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계자들이 이달 방한해 시 주석의 방한을 대비한 준비 작업을 한다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 주석의 남북한 동시 방문 등 일정은 마·중 간 무역 협상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교착상태에 빠진 막판 무역 협상의 영향으로 연기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마·중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져야만 시 주석 또한 평양에 갈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커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시 주석의 방북이 자칫하면 '중국 책임론'을 거론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73〉 두우

두우(杜佑, 735-812)의 자는 군경이며 현 섬서성 시안시에 해당하는 경조부 만년현 출신이다. 덕종, 순종, 헌종 3대에 걸쳐 재상을 지냈다. 역사서인 통전(通典) 200권을 서술했다.

과거를 거치지 않고 문음(文藻)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제남 참군, 섬현 현승을 거쳐 운주자사 위원보의 참모가 되었다. 두우의 부친에게 은혜를 입은 위원보는 그를 잘 대우했다.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시의적절한 의견을 내는 두우를 신임해 사법참군으로 발탁했다. 위원보가 절서, 회남절도사에 제직하는 중 보좌해 검교주객원외무주사사 등을 역임하였다. 779년 덕종이 즉위하고 양염이 재상이 되었

으로 재상직에 올랐다. 재정전문가 유안 이후 가장 뛰어난 행정 관료로 평가 받았지만 안팎의 악재에 시달려야 했다. 805년 덕종이 죽고 순종이 즉위하자 측근인 왕숙문 일파는 같이 개혁을 추진하자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숙종의 건강이 나빠 오래 살 가능성이 없었고 왕숙문, 유종원, 왕비 등 개혁세력의 경험 미숙과 환관세력과의 불화로 권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806년 순종이 죽고 헌종이 즉위해 원화 개혁에 착수했다. 그는 병부시랑·탁지시·염천전운부사 이손을 천거해 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이손은 직책을 맡은 지 1년 만에 조세수입을 대폭 늘려 재정을 안정시켰다. 두우는 사도에 제수되고 기국공에 봉해졌다. 하서의 당항족이 토번과 무주자사 등을 역임하였다. 779년 덕종이 즉위하고 양염이 재상이 되었

3대 걸쳐 재상...역사서 '통전' 200권 서술

다. 안사의 난으로 피해해진 재정을 재건하고 하북 변진과의 전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았다. 공부랑중, 강회수륙전운사, 호부시랑, 판탁지 등의 직책을 역임했다. 특히 하북지역의 군량 수송을 책임지는 일을 수행했다. 판탁지로 장안 상인에게 돈을 빌려 전쟁비용에 충당했는데 상인들의 신고 내용을 의심해 번번히 매질하니 장안이 떠들썩하기가 노락질을 당한 것과 같았다고 한다. 782년 부족한 군비를 조달하기 위해 조정대신들이 한 달 분의 봉록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두우는 상소문을 올려 "각지에 주둔한 군대가 매달 100여만 관을 쓰고 있어 현재의 국고로는 몇 개월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500만관의 자금을 마련해야 군비를 넉넉히 조달할 수 있습니다."고 주장했다.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관직을 줄일 것을 주장해 재상 노기의 분노를 사 지방으로 좌천되었다. 784년 경원병변(涇原兵變)이 일어나자 영남절도사 겸 여사대부로 기용되었다. 789년에 양주대도독장사 겸 회남절도사를 겸하였다. 800년 서주절도사 장음이 조정의 뜻을 따르지 않자 동평장사 겸 서사절도사로 토벌에 나섰으나 큰 공을 세우지는 못했다.

803년 동중서문하평장사, 검교사공

과 물자가 희생되는 일을 최소화하였다. 민생안정에 국정의 우선순위를 두었다.

헌종은 그가 연로하고 덕망이 커 크게 예우했다. 항상 사도(司徒)로 부르며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노환으로 자리를 물러날 것을 청하자 조서를 내려 매달 두세 번만 조회토록 하였다. 중서에서 큰 정사만을 행기도록 하였으며 그 외의 날에는 고향인 변천으로 돌아가도록 지극히 배려했다. 812년 여러 차례 관직을 그만 둘 것을 청하니 광록대부(光祿大夫), 태보(太保)의 관직을 내리고 사직을 허락하였다. 다만 매월 1일과 15일에는 조정에 입조토록 하였다. 11월 병으로 세상을 떠나니 태부로 추증했다. 그의 사후 814년 헌종은 그의 손자 두종을 큰 딸 기양공주와 결혼시켜 사위로 삼았다.

학문을 좋아해 항상 손에서 책을 떼지 않았다. 낮에는 등청해 일하고 밤에는 독서에 매진했다. 36년간 역대 왕조의 제도를 비교분석해 801년 통전 200권을 저술했다. 설(說), 의(議), 평(評), 론(論) 같은 체계적인 구성과 풍부한 내용으로 중당 이전의 제도를 살펴보는 데 반드시 참고해야 할 필독서가 되었다. 중국 역사상 최초의 전장(典章)제도를 기록한 전지제(典志體) 사서로 높게 평가된다.



불타는 상젤리제 프랑스 파리 개신교 인근 상젤리제 거리에서 열린 16일(현지시간) '노란 조끼' 제18차 집회 도중 참석자들이 바리케이드를 불태우고 있다. 프랑스에서 다섯 달째 매주 토요일 이어지고 있는 '노란 조끼'의 이날 연속 집회는 상점과 은행, 음식점이 잇따라 약탈과 방화를 당하는 등 또다시 폭력사태로 얼룩졌다. /연합뉴스

에티오피아 "블랙박스서 737맥스8 추락 사고 유사점 확인"

"데이터 성공적 복원 인도네시아 사고와 유사"

에티오피아항공과 인도네시아 라이온 에어 소속 보잉 737 맥스(MAX) 8 기종 추락사고 간의 유사성이 비행기록장치(블랙박스)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고 에티오피아 교통부장관이 17일(현지시간) 밝혔다.

다그마워트 모게스 교통부 장관은 이날 "(사고기) 블랙박스데이터는 지난 10일 발생한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사고와 지난

해 10월 라이온 에어 항공기 사고 간에 명백한 유사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블랙박스 데이터는 성공적으로 복원됐다. 미국 조사팀과 우리 팀이 이를 승인했다"며 "앞으로 3~4일 이내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교통안전국 관리들은 아직 사고기 블랙박스에서 복원한 데이터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리들은 블랙박스 데이터를 확인한 조사관들이 에티오피아로 돌아가 분석작업에 들어가면, 연방교통안전위원회

(NTSB)와 연방항공국이 데이터 확인 및 승인 절차를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금까지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된 데이터와 교신 내용 음성녹음 정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비행 기록과 관련된 1800여개에 이르는 매개변수 데이터와 사고전 6분간 비행에 관한 2시간 분량의 조종실 녹음기록 등이 조종 조사에서 고려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복원 직후 추락 원인에 관한 일반적인 원인이 드러나긴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완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연합뉴스

"우상같은 스타들 추락 한국 음악산업 큰 타격" **伊유력자 K팝 추문 조명**

'성과 마약, 그리고 부패: K팝 스타들이 추락하다'

박병 탬버 승리(본명 이승현·29)와 가수 정준영(30)의 성 접대 및 불법 성관계 동영상 촬영 의혹이 커지면서 외신도 이번 사태를 집중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 유력 일간지도 추문에 휩싸인 K팝을 조명했다.

일간 라레푸블리카는 지난 15일자 지면에서 승리와 정준영이 성매매 시도, 성관계 불법 촬영과 그룹 채팅방에서의 영상 공유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아시아를 넘어 서양에서도 인기를 끌기 시작한 한국 음악 산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신문은 "완벽하고 천사 같아 보이던 K팝 스타들이 이렇게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특히 팬들은 그들을 마치 우상처럼 섬겼는데, 우상과 같았던 그들이 한명씩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박병'의 탬버 승리가 가장 먼저 추락한 데 이어 현재 수십여 명의 연예인이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고 있다"며 정준영과 '하이라이트' 멤버인 용준형도 문제가 된 그룹 채팅방과 연관돼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투자 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임야, 투자적합
- 22600평중 지분 2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매매 - 5000만원

문의. 010-6834-7400

신창동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가도빌딩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 급매8억(대출3억5천만원 포함)

문의. 010-3605-5000